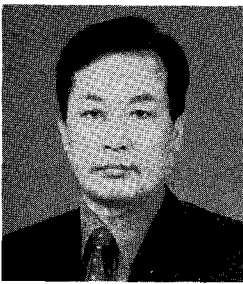


채란업의 현실성을 고려 안정된 사업 펼치게...



오 정 길
(본회 대구경북지부장)

유 난히 춥고 매섭던 겨울이 가고 희망찬 새봄을 알리는 3월이 왔다. 채란 경기도 봄눈 녹듯 술술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새정부 출범에 새로운 기대를 가져본다.

근래들면서 우리 양계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2001년도 말부터 우리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계란 등급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7월에 실시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무자조금 입법화 또 앞으로 시행될 농장의 등록제 등 많은 일들이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유통, 환경, 인력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한다.

유통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식용계란이 축산물에 포함되면서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따라 항생제 잔류나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 안된다라고 고시하고 있으며, 등급란, 특수란 등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들이 차별화된 높은 가격에도 잘 팔려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육환경이 나쁘고 질병에 걸린 닭에서 생산된 계란은 당연히 판매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대형할인매장이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은 소비자가 원하는 계란을 구매하려 할 것이고 만약, 탈색란이나 깨끗하지 못한 계란, 항생제가 잔류하거나 부패한 계란을 판매했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변상을 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제 농가에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생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계란이 소비자의 식탁에 도달 할 수 있는 유통 체계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깨끗한 계



란을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 제반 시설이 미흡할 경우 정부에서 실시하는 등급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환경과 관련하여 계분은 농가에서 큰 고민거리로 다가서고 있다. 우리 채란업이 과거에는 계분을 생산하여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들면서 악취가 많고 먼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과수원이나 채소 농가, 비료공장 등에서 돈을 주고 수거해 갔지만 최근에는 농가에서 왕겨나 톱밥을 자비로 부담하면서 섞어야 가져간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공짜로 주어도 가져가지 않는 곳도 있으며 수거 비용을 부담하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계분 처리 비용이 점점 늘어 갈 것이다. 먼지나 악취로 민원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위를 깨끗이 하고 주변

의 주택이나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환경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계분처리 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다음으로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계 처리 문제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계는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계처리장에서 작업이 지연되면서 상당수의 닭들이 환우에 들어가는 등 오히려 불황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계육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든지 환경에 저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 노계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환경에서 신선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자동화, 규모화 되면서 인력절감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계업은 3D업

중이기 때문에 노동력은 점점 잃어갈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지 않은가? 축산업도 이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노동계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분야에도 자칫하면 생산비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업계의 실정을 파악한후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까지 우리 양계 농가들은 정부의 농축산 정책에 암전한 효자였다. 계란값이 폭락하고 닭고기값이 폭락하여도, 또한 사료값이 오르고 닭고기와 계란이 무차별 수입되어도 항의하는 농가 하나 없었으며 우리 양계업의 어려움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지도 못했다. 이제 우리

도 아프면 아프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우리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와 유통 문제, 농가의 인력난 등과 같은 양계업계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양계협회와 양계조합 그리고 학계, 연구기관이 다함께 중지를 모아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의 지부에서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벌이며, 안일한 농가들을 일깨우는 등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침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때인 만큼 우리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정부에 협조와 농협중앙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 정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정부에서도 최근의 양계업의 어려움을 간파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계**

중추 전문 농장

- 우수한 품종
- 철저한 백신접종
- 건강한 닭만 출하합니다.

석골농장

주 소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1230-17번지
 전 화 : (055)353-6477, 휴대폰 : 011-9309-6477